

근대부터 온택트까지 『개인의 탄생』 출간

양세빈 기자 abok29@khu.ac.kr

조현준 휴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개인의 탄생』을 펴냈다. 『개인의 탄생』은 휴마니타스칼리지와 소소 의책이 기획한 교양 인문서 시리즈 중 하나로, 근대적 개인의 탄생으로 인한 대도시의 발전과 시공간 확장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개인까지 조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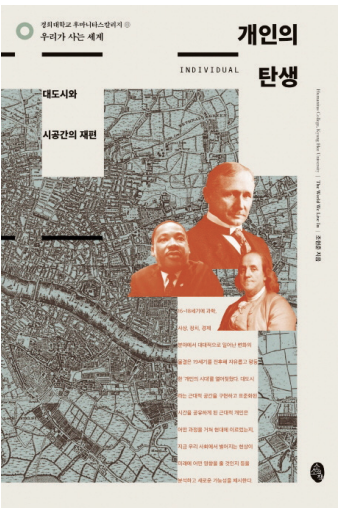
전근대적 계급 질서의 붕괴로 등장한 근대적 개인은 19세기 중반 런던과 파리를 중심으로 대도시를 만들기 시작했다. 시간이 표준화되자 서로 다른 문화권 사이에도 동질적이고 균일한 척도로 교류가 가능해

졌으며, ‘시간은 돈’이 돼 자본주의적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사회는 변화했다. 방송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은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사회를 만들었다. 저자는 시공간의 재편이 일어난 사회 속에서 근대적 인간은 계급과 가문에 의해 삶이 정해졌던 전근대적 개인과는 달리 ‘보편적’이면서 개별적이고, 비슷하면서 서로 다른 존재’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근대적 개인의 독립성 확립과 개인주의 심화에 대해 현대 문화의 개념이 ‘무엇이든 혼자 하는 것’으로 정착된 느낌이라고 말한다. 혼밥·혼영·혼놀의 시대에서 현대인

은 디지털 장비를 통해 더욱 개인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의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고 관계를 맺으며 사이버 공간 속 공동체를 통해 사회성을 보강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다양한 정보망과 관계성을 지원받는 현대인들은 더욱 용이하게 자기 삶을 선택하고 성취하며 현실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은 사이버 공간을 일상으로 만들었다. 이에 저자는 현재 사회에서 나타나는 온라인 소통 속 개인의 외면 중시, 자발적 노출,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빚어낸 혐오 감정들의 문제를 지적한다. 저자는 온라인 사회성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기심을 자극하는 ‘관심의 감옥’이라며, 지나친 관심을 요구하는 사람은 거울의 방에 갇힌 것이므로 관심의 감옥을 벗어나려면 스스로 마음의 거울을 깨



『개인의 탄생』

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지금은 이분법보다는 다원성이, 우열을 다투는 양자 구도보다는 평화롭게 공존하는 다자간의 조화로움 구도가 필요한 때라며 현대인이 미래에 갖추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객관적 지표를 쌓기 위

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청춘들에게 주관적 가치를 추구해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를 앞당기기를 제안한다. 또한, 도시 집중 현상, 자본주의의 확립, 디지털 빈부격차 등 개인이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바라본다. 저자는 앞으로 현대인들이 풀어가야 할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주의와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만큼 공공성과 윤리성 모두 우리가 지켜야 할 상호 의존과 상호 존중의 가치임을 강조한다.

『개인의 탄생』은 개인의 탄생부터 도시와 시공간의 재편 방식을 보여주고 개인이 마주할 문제들을 제시하며, 개인의 존재 의미와 개인이 앞으로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이로써 독자들은 “근대의 유산으로 파생한 현대의 시공간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미래로 열려있다.”는 저자의 말을 깊이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저상 버스 도입 시기 아직 일러

정다연 기자 ekdusgood@khu.ac.kr

【서울】최근 장애인 이동권, 온실가스 문제와 맞물리면서 우리학교와 회기역을 오가는 동대문 01번 버스에 저상 전기버스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그러나 동대문구청과 동대문 01번 버스를 운영하는 우리운송은 현실적으로 저상 전기버스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를 말한다. 동대문 01번은 경희의료원과 회기역을 연결하는 특성상 대부분의 버스 이용객이 경희의료원 환자와 우리학교 학생이다. 이 중에는 노약자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포함하고 있다. 휠체어를 타는 경우 저상버스가 아니면 버스에 탑승하지 못한다. 또 다리가 불편한 이동 약자는 버스의 높은 턱을 오르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동대문 01번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 A씨는 “경희의료원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이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상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며 “저상 전기버스의 도입이 당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 전기버스 도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대학주보 DB)

아니더라도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남우석(철학 2018, 2021학년도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씨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 전기버스 도입 서명운동에 나섰다. 서울캠 총학 봉건우(자율전공학 2017) 회장은 5월 28일 동대문구청장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저상 전기버스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이필형 후보자는 “동대문 01번 버스의 노선은 회기역에서 경희의료원까지 왕복 1.8km의 짧은 거리지만, 매연과 소음 등으로 인한 공해로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전기 버스 도입을

우선 고려해 보겠다”며 도입 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동대문 01번과 비슷한 조건의 다른 지역 마을버스는 저상 전기버스를 점차 도입 중이다. 서대문구 03번은 현재 저상 전기버스로, 서울시 최초의 저상 전기 마을버스이다. 서대문 03번 역시 노약자 및 이동 약자가 많은 세브란스병원과 연세대학교, 신촌역을 경유한다. 서대문 03번을 운영하는 연일교통은 “저상 전기버스 도입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안다”며 “예산이 없어 진행하기 쉽지 않았지만, 지원을 받아 도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대문 03번은 국비 6억 원과 시비 7억 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동대문구청과 우리운송은 저상 전기버스를 도입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동대문구청은 “당장 저상 전기버스의 도입은 어렵다”며 “동대문 01번 버스 중 대체차 기간이 도래한 버스가 없고 전기 충전 시설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동대문구청은 “저상 전기버스의 도입은 무엇보다 버스회사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시의 지원이 있어도 버스회사의 일부 지출 부담이 있기에 단기간에 실행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운송 또한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에 비해 길이가 길다”며 “도로 요건상 (회차지인) 회기역에서 유턴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포스트모던 음악학과 재학생공연 3년 만 재개

강주는 기자 smurf0925@khu.ac.kr

【국제】포스트모던음악학과 재학생 공연이 3년 만에 재개된다. 이번 공연은 오는 10일 예술디자인대학관 A&D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연에는 총 15개의 팀이 참여하며, 각 팀은 케이팝·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포스트모던음악학과 학생회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었던 공연예술계가 점점 활성화됨에 따라 시기상으로 개최하기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포스트모던음악학과 학생회 조우영(포스트모던음악학 2018) 전공장은 “이번 공연은 단순히 학생들의 공연이 아닌 실력 있는 프로들의 무대라고 생각한다”며 “공연자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도 만족할 만한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이번 공연의 목표다”고 말했다. 덧붙여 “헌신적으로 작업한 스태프와 아티스트 모두 이번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공연예술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한다”고 전했다.